

마을굿과 두레굿의 儀式構成

李 輔 亨

《차 례》	
I. 머릿 말	2. 儀式構成形式
II. 마을굿의 儀式構成	IV. 두레풍장의 音樂
III. 두레굿의 儀式構成	V. 맺 는 말
1. 두레 굿의 事例	

I. 머릿 말

잡이들이 쟁과리·징·장구·벅구(法鼓)와 같은 打樂器를 치고 발립하면서 行進·儀式·놀이를 벌리는 音樂을 요새는 두루 農樂이라고 이르고 있으나 옛날에 農樂을 치는 이들의 말을 들어 보면 農樂 치는 것을 「굿 친다」 「매구 친다」 「金鼓 친다」 「취군 논다」 「풍장 친다」고 하는 말을 흔히 쓰고 「農樂 친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農民들의 農事에만 農樂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요새는 農樂을 주로 民俗行事に 연주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주로 여러가지 民俗的인 儀式을 契機로 연주하였다. 예를 들면 맺굿, 마당밧이, 다리밧기, 당산제, 두레굿, 걸립굿, 성주굿 등이 모두 儀式과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두레굿만이 農民들의 農事に 치는 農樂이라 할 수 있다.

당산제는 마을굿을 농악으로 치는 것이며 매굿, 마당밧이, 걸립굿과 같은 농악이 당산제의 儀式構成을 따른다는 것이 대충 밝혀졌다⁽¹⁾. 그러나 두레굿은 農事に 치는 農樂으로만 알려졌을 뿐 마당밧이나 걸립굿과 같이 마을굿의 儀式構成과 같은 점이 있는지 밝혀지 못하고 있다. 나는 두레굿의 공연 事例를 몇가지 들어 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儀式構成이 마당밧이, 걸립굿의 경우와 같이 마을굿과 같은 점이 있는가 따져 보고자 한다.

II. 마을굿의 儀式構成

나는 재수굿, 도신, 천신굿, 안택굿과 같은 家祭를 「집굿」이라 이르고, 오구굿, 셋김굿,

(1) 李輔亨 「神대와 農旗」 韓國文化人類學 第八輯(서울: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pp. 59~66.

진노귀, 시왕굿과 같은 慰靈祭를 넋굿이라 일컫듯이 서낭굿, 당굿, 산신굿, 별신굿, 대동
굿과 같은 部落祭를 마을굿이라 이른다.

마을굿에는 釜山市 東萊區 海雲臺 尾浦의 別神굿⁽²⁾과 같이 무당의 歌舞로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고 全羅南道 莞島郡 莞島邑 長佐里 堂祭⁽³⁾와 같이 農樂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고 忠淸北道 丹陽郡 大崗面 龍夫院里 山神祭⁽⁴⁾와 같이 祭官의 獻盞讀祝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있다. 마을굿은 무당의 歌舞로 이루어지든, 마을사람들의 農樂으로 이루어지든, 祭官
의 讀祝으로 이루어지든 어느 경우에나 굿에 집돌이(家家巡訪)가 덧붙는 것이 많다.

나는 마을굿의 儀式이 忠淸北道 丹陽郡 大崗面 龍夫院里 山神祭⁽⁵⁾와 같이 본굿(本祭) 만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全羅南道 珍島郡 臨淮面 屈浦里 洞祭⁽⁶⁾나 全羅北道 金堤郡
金溝面 서도마을 洞祭⁽⁷⁾와 같이 당굿(堂祭)——집돌이(家家巡訪)로 儀式이 構成되었다든
가, 京畿道 高陽郡 射亭洞 도당굿⁽⁸⁾이나 서울시 龍門洞 南怡將軍堂 堂굿⁽⁹⁾과 같이 당굿(堂
祭)——집돌이(家家巡訪)——당굿(堂祭)으로 儀式이 構成 되었다든가, 釜山市 東萊區 海
雲臺 尾浦 別神굿⁽¹⁰⁾이나 江原道 江陵市 江陵端午祭⁽¹¹⁾와 같이 당굿(堂祭)——집돌이(家家
巡訪)——본굿(本祭)으로 儀式이 構成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¹²⁾.

집돌이는 마을굿에서 굿패들이 서낭대(神竿)나 서낭기(神旗)를 들고 서낭당(神堂)에 가서
서낭을 받고 서낭대를 앞세우고 風樂을 울리면서 마을 집집마다 도는 儀式을 가리키는데
京畿道 大同굿에서는 이것을 「돌돌이」라 부른다. 집돌이는 三絃六角과 大吹打 樂隊가 동원
되는 수도 있지만 흔히 農樂으로 길굿을 치는 경우가 많다. 農樂에서 당산제란 農樂으로 굿
을 하고 農樂으로 집돌이를 하고 農樂으로 판놀음을 벌리는 마을굿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
라서 農樂으로 벌리는 당산제는 儀式으로 보면 마을굿에 들고 音樂으로보면 農樂에 든다고
할 수 있다.

農樂으로 벌리는 마을굿 즉 당산제는 당산굿——쌈굿——집돌이——판굿으로 構成되고
집돌이는 문굿——마당굿——조왕굿——조주굿——성주고사로 構成되는 바 農樂에서 매 굿

(2) 李輔亨「巫俗音樂」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三冊 慶南編(文化財管理局 1972), pp. 272~278.
(3) 李杜鉉, 「民俗藝術」韓國民俗學概論(서울:民衆書館 1974), pp. 267~269.
(4) 張壽根, 「部落祭」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七冊 忠北編(文化財管理局 1976), p. 110.
(5) 註 4 와 같음
(6) 張壽根, 「部落 및 家庭信仰」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一冊 全南編(文化財管理局 1969), pp. 228~229.
(7) 李鍾哲, 「서도 部落祭의 考察」韓國文化人類學 第四輯(韓國文化人類學會 1971), pp. 91~93.
(8) 村山智順, 部落祭(京城:朝鮮總督府 1937), pp. 11~12.
(9) 金泰坤, 「韓國神堂研究」국어국문학 제29호(국어국문학회 1965), pp. 87~88.
(10) 註 2 와 같음
(11) 任東權, 「江陵端午祭」韓國民俗學論攷(서울:宣明文化社 1971), pp. 225~228.
(12) 註 1 과 같음

마당밭이·걸림굿이 이와 같은 儀式構成을 갖는다.

매국은 湖南地方에서 설날 그믐날밤 農樂으로 불리는 마을굿으로 당산제와 같은 儀式構成을 갖으나, 당산굿을 간소하게 치고 집굿도 간단히 친다.

마당밭이는 正初에 여러날을 두고 農樂으로 당산제와 같이 불리는 마을굿으로 일명 地神밭기, 踏庭굿, 뜰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당밭이는 당산제와 같은 儀式構成을 갖으나 당산굿을 간단히하고 집돌이를 크게 하는 것이다.

걸림굿은 돈이나 쌀을 걸기 위하여 마당밭이와 같이 불리는 農樂으로 儀式構成은 마당밭이와 같다.

III. 두레굿의 儀式構成

두레란 마을 단위로 모든 일꾼들이 큰 일을 힘을 모아 함께 해내기 위하여 짜여진 모임이다. 두레에는 일감의 종류에 따라 김매기두레, 모내기 두레, 풀베기두레, 질삼두레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김매기 두레에 農樂이 딸린다. 두레패들이 치는 농악을 두레굿 또는 두레풍장이라 이른다.

1. 두레굿의 事例

지금 두레굿은 없어진지 오래이고 또 4·50년 전에 전승되던 것도 거의 김매 때 길군악이나 치고 호미걸이날 술먹고 농악치며 노는 것으로 退化되어 두레굿에 관하여는 체계적으로 보고 된 바 없었다. 따라서 두레굿과 마을굿과 儀式構成에 관하여 조사할 마땅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먼전 조급이라도 儀式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몇가지 두레굿의 事例를 열거하고자 한다.

(1) 珍島郡 智山面 仁智里 대동굿

진도 셋김굿 保有者 朴秉千(男 1933年生)에 의하면 全羅南道 珍島郡 智山面 仁智里에서는 두레 짜는 것을 「대동차린다」 또는 「대동선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김 매 때나 馬草베 때와 같이 큰 일에 흔히 대동을 차렸던 바 그 가운데 「황중발 맨다」하여 조밭 매 때 가장 크게 차렸다고 한다. 밭 김도 초벌, 두벌, 만물(당중) 이렇게 세벌 매는데 만물에 대동을 차려 매는 경우가 많았다.

대동을 차리게 되면 먼저 영장(영좌) 집사 등 임원을 정하고 당제를 지낼 준비를 하는데 대동 차릴 때 지내는 당제를 대동굿이라 불렀다 한다. 임원들은 당제날 까지 비린 음식 안 먹고 굶은 곳에 가지 아니하고 夫婦가 각방 잠자리를 하면서 근신하고 제물을 장만한다.

대동 차리는 날 새벽에 대동굿을 한다. 무당과 제관과 쇠꾼들이 제관집에 모이고 징을 친다. 새벽에 징 소리가 나면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일체 멈추고 집안에서 근신 한다. 무당과 제관과 쇠꾼들이 먼저 당산으로 가서 제를 지낸다. 令旗와 龍旗(대동기)가 앞서 가고 쇠꾼들이 질굿을 치며 달아가고 무당과 임원과 제관들이 제물을 들고 뒤 따른다. 당산에 이르면 令旗와 龍旗를 당산 곁에 꽂고 쇠꾼들은 당산 앞에 일렬횡대로 선 다음 상쇠가 「벅구여」하고 소리치면 쇠꾼들이 「예」하고 대답한다. 상쇠는 다시 「당산 할아버지 당산할머니 모시고 당산 주산을 잠깐 치면 오방신장 육방천용에서 잠귀잠신을 밀막는다니 당산주산을 잠깐 치세」하고 소리치고 나서 쇠꾼들이 들당산굿을 친다.

쇠꾼들이 들당산굿을 치는 동안 무당과 제관과 임원들은 제물을 차린다. 쇠꾼들이 들당산굿을 마치고 나면 쇠꾼들은 농악을 그치고 그대로 서 있고 무당과 제관이 당제를 지낸다. 무당이 악기 반주 없이 말로 「海東朝鮮 全羅道 珍島郡 智山面 仁智里 마을에서 ○○年 ○月○日날에 날 받아 대동을 차려 ○○당 할머니에게 고하니 하관통축하십어요」 하는 내용으로 빌고 나서 소지 올린다.

당제를 마치면 쇠꾼들은 쇠로 굿을 이루고 인사굿을 친 다음 令旗와 龍旗를 앞세우고 질굿을 치며 마을로 내려와 제관집에 이르러 징을 친다. 징소리가 나면 마을 사람들은 당제가 끝난 줄 알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임원들과 쇠꾼들은 제관집에서 조반을 들고 징을 치면 마을 일꾼들이 모여든다.

일꾼들이 모이면 질굿을 치거나 질뽕뎡이를 부르면서 밭으로 나간다. 밭에 이르면 쇠꾼들이 굿을 이루고 일꾼들이 일렬로 늘어 설 때 흥겹게 친다. 일꾼들은 「화중발소리」를 하며 김을 맨다. 일꾼이 많을 때에는 쇠꾼들은 화중발소리에 맞추어 쇠를 치며 일꾼이 적을 때에는 쇠꾼들도 김을 매고 북잼이만 혼자 서서 북을 치며 소리를 이끌어 나간다. 밭으로 옮겨 갈 때에는 쇠꾼들이 질굿을 치거나 일꾼들이 질뽕뎡이를 부른다.

김을 다 매고 마을에 들 때에는 질굿을 치거나 질뽕뎡이를 부르는데 김을 다 맨 경우에는 (흔히 하루에 다 맨다) 일꾼들이 보(頂水池)에 가서 쇠가락에 춤을 추며 호미를 씻고 몸을 씻는데 이것을 「호미씨세」라 부른다. 호미를 씻고 일꾼들은 질뽕뎡이를 부르며 마을로 들어와 저녁을 내기로 한 大家宅에 들어가서 놀고, 쇠꾼들은 당산에 들러 날당산굿을 치고 마을로 내려와 大家宅에 들러 일꾼들과 합류한다.

저녁을 먹고 밤에는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소고를 치면 선소리를 부르고 판놀음을 벌인다.

다음날 저녁에 쇠꾼들이 명태등 간단한 제물을 차리려고 농악을 치며 삼거리나 다리로

나가서 제물을 땅에 놓고 모닥불을 피우고 농악을 잠깐 친 뒤에 모닥불을 차레로 넘은 다음 인사굿을 치고 나서 쇠를 끄치고 일체 쇠소리를 내지 않고 마을로 들어 온다. (쇠 소리를 내면 잡귀가 따라 온다고 한다)

(2) 高陽郡 松浦面 大化里 호미걸이

京畿道 高陽郡 松浦面 大化里에서는 김매기 철에 두레를 짊어 김을 매며 두레굿을 쳤다⁽¹³⁾. 農旗를 앞세우고 두레패들이 풍물로 길군악을 치며 들에 나갔고 農旗를 논두렁에 꽂고 김을 매고 마을에 들 때에는 農旗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치며 마을에 들었다.

김매기가 끝나면 날을 받아서 호미걸이를 한다. 잘 사는 집집마다 술 한동이 혹은 안주 한 가지씩 맡아서 장단한다.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農旗를 앞세우고 풍물로 길군악을 치며 당산에 가서 당 앞에 제상을 차리고 당제를 지낸다. 당제를 마치고 당 마당에서 농악을 치고 놀고 있으면 이웃 마을 두레패들이 農旗를 앞 세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모여든다. 이웃 마을 두레패들이 모여들면 이웃 마을 農旗가 大化里 마을 農旗에게 인사를 들이는데 「旗새배」라고 부른다. 기새배를 마치면 점심 때 쯤 되는데 여러 두레패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나서 다시 풍물을 치고 즐기다가 오후 3시쯤 되면 마을 농사꾼들이 연장을 들고 당마당으로 모여 판놀음을 벌린다.

판놀음은 먼저 농사풀이를 벌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가래를 들고 논 두덩 고치느라고 가래질 하는 시늉을 하고 농부 들이 덕석을 뒤집어 쓰고 소 시늉을 하면 여기에 쟁기를 매고 쟁기로 논을 가는 시늉을 하고 다음에는 씨래를 매어 씨래로 논 삼는 시늉을 하고 나면 다른 농부가 범씨 뿌리는 시늉을 한다.

다음에는 여러 농부들이 나와서 모찌는 시늉을 하며 열소리(모찌기소리)를 부른다. 다음 모심는 시늉을 하며 모내기 소리를 부른다. 다음에는 모갓이가 복을치며 선소리를 메기면 농꾼들이 김매는 시늉을 하며 긴소리, 사두여, 양산도, 방아타령, 놀놀이, 자진놀놀이와 같은 김매기 소리를 부르고 이어서 훨훨, 몸돌이와 같은 새 쫓는 소리도 부른다.

다음에는 풍물로 판놀음을 벌린다.

(3) 密陽邑 三門洞 쯤배기 참놀이

慶尙南道 密陽郡 密陽邑 農村에서는 김매가 끝나면 百中을 前後로 辰日을 택하여 농부들이 풍년을 빌고 풍악을 치며 하루를 즐기는 파 「쯤배기 참놀이」라 불렀고 요새는 「백중놀이」로 많이 알려졌다⁽¹⁴⁾.

(13) 李輔亨, 「音樂 및 舞蹈」,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十冊 서울編(文化財管理局 1979), pp. 339~334.

(14) 鄭炳浩, 「密陽百中놀이」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第138號(文化財管理局 1980).

놀이 마당에 저릅대(삼대)를 여러개를 원새끼 9마디로 묶고 五色 천을 감고 쌀·콩·돈
祝願文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꼭대기에 원새끼로 꼬아 만든 龍 3개를 달아 농신대(農神
竿)를 만들어 땅에 꽂아 놓는다.

먼저 풍물을 치며 부정굿과 같이 「잡귀막이」 굿을 하여 굿판을 가시고 풍물을 치며 한
바 탕 논 다음 농신대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두레패들이 둘러서서 치성을 드리고 나서 음
복을 하고 풍물을 치며 모정자놀이 (農事놀이), 작두말, 양반춤, 병신춤, 범부춤, 5북놀이
등 관놀음을 벌인다.

(4) 金堤郡 萬項面 大同里 술멕이

全羅北道 金堤郡 萬項面 大同里에서는 여름철에 만두레가 끝나는 날 풍물을 치고 노는
바 「술멕이」 또는 「호미씻이」라 부른다. 만두레가 끝날 무렵에는 술멕이하는 날 딸 논 만
남겨 놓는다. 아침에 당산에 農旗와 令旗를 세워 놓고 나팔을 불고 북을 울리면 두레패들
이 모여든다.

두레패들은 굿을 일우고 쇠가락에 따라 당에 걸하고 쇠가락을 자진가락으로 잠깐 친 다
음 令旗와 農旗를 앞세우고 질굿을 치며 들로 나간다. 일부러 남겨둔 논에 이르러 農旗와
令旗를 논두렁에 꽂고 자진가락을 잠깐 친 다음 농부들은 김을 매고 쇠꾼들은 두레풍장가
락을 친다. 농군들은 만경산타령을 부른다. 김매기를 마치면 令旗와 農旗를 앞세우고 大同
里에서 農事장원한집 상머슴을 무등을 태우고 쇠꾼들은 질굿을 치고 농부들은 지화자 소리
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온다. 두레패들은 당산에 돌아와 農旗와 令旗를 꽂고 풍물을 치며
놀다가 마을에서 장만한 飲食이 나오면 당산과 農旗에 술을 붓고 飲食을 나누어 먹으며 저
물도록 관놀음을 벌리며 논다.

(5) 井邑郡 泰仁面 泰興里 술멕이

全羅北道 井邑郡 泰仁面 泰興里에서는 여름철 두레패들이 김을 맬 때 農樂을 친다. 두레
를 짜는 것을 「두레 난다」고 하는 바 초벌 두벌에는 치지않고 만두레(세벌 김매기)에만
친다.

만두레를 하게 되면 아침 일찍 당산에 용당기 (農旗)와 令旗를 세워 놓고 아침 8시쯤 되
면 두레패들이 풍물을 갖이고 당산에 와서 굿을 이루고 당산 앞에 횡대로 늘어선 다음 쇠
가락에 맞추어 질을 세번하고 잠깐 자진가락을 친 다음 令旗를 앞세우고 질굿을 치며 들에
나간다. 논에 이르면 令旗를 논두렁에 꽂아 놓고 자진가락을 잠깐 친 다음 농군들은 김을
매고 쇠꾼들이 뒤를 따라가며 農樂을 치는데 이 김맬 때 치는 農樂을 「두레 풍장굿」 이라
하고 약하여 「풍장굿」 또는 「풍장」이라 한다. 쇠꾼들은 일꾼들이 논에 들어 갈 때는 「들풍

장)을 치고 김멜 때는 「지심풍장」을 치고 논에서 김매기가 끝날 무렵에는 「날풍장」을 치고 이동할 때 「재님이 풍장」을 치는 등 여러가지 풍장굿 가락을 친다. <악보 참고>

저물어 두레패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에는 주인집 상머슴을 소나 사다리에 태우고 질굿을 치며 들어 오는바 일꾼들은 「어화어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배꽃타령」을 부르며 들어온다. 두레패들어 「어화어화」하고 소리한다고 하여 두레굿을 「어화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인집에서 술을 내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농악을 치다가 기분이 나면 그집 상머슴을 사다리에 태우고 질굿을 치며 마을 고삿을 누비기도 한다.

김매기가 끝나면 백중날 農樂을 치고 노는바 「술매이」 또는 「어화굿」이라 부른다. 백중날 아침 일찍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큰 우물을 품어 내어 깨끗이 하고 거리를 깨끗이 치운 다음 아침밥을 먹고 農旗·令旗 풍물 따위를 가추고 당산으로 간다.

당산에는 한편에 큰 가마를 여러개 걸어 놓고 개등 짐승을 잡아 삶고 두레패는 農旗 令旗를 당산에 꽂고 굿을 이루어 먼저 당산굿을 친 다음 당산 마당에서 하루종일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농악놀음을 벌리며 논다.

(6) 洪城郡 結城面 衡山里 두레먹기

忠淸南道 洪城郡 結城面 衡山里에서는 김매기 철에 두레굿을 친다. 김은 아시(초벌) 두벌 만물(세벌)을 매는 바 아시부터 두레굿을 친다. 김매기 철에는 아침 일찍 동구에 令旗 龍大旗(農旗)를 세워 놓는다. 마을 두레패들이 풍물을 들고 용대기 앞에 모여 횡대로 늘어서서 굿을 이루고 쇠가락에 맞추어 절을 세번한 다음 令旗와 용대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치며 들로 나간다. 들에 이르면 논둑에 龍大旗 令旗를 세워 놓고 자진가락으로 한 바탕 친 다음 김을 매는바 김멜 때에는 농악을 치는 때도 있으나 흔히 치지 않는다. 점심이 나오면 먼저 農旗 앞에 술잔을 부어 놓고 농꾼들이 쇠가락에 맞추어 절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는다. 김매기를 마치고 마을에 들 때에는 용대기 앞에 늘어서 굿을 이루고 기를 앞세우고 길군악굿을 치며 마을에 들어와서 자진가락을 치고 굿을 파하고 헤어진다. 김매기가 끝나고 5~10일 안으로 날을 받아서 음식을 장만하여 먹고 농악을 치고 노는데 「두레먹기」라 한다.

두레먹는 날은 언덕에 용대기와 令旗를 꽂고 두레패들이 旗 앞에 늘어서서 龍大旗 앞에 술 석잔을 붓고 굿을 이룬 다음 쇠가락에 따라 절을 세번 하고 그 앞 마당에서 하루종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판굿을 치고 논다.

(7) 江華郡 松海面 率丁里 파집

京畿道 江華郡 松海面 率丁里에서는 여름철에 김을 멜 때 풍물을 쳤다⁽¹⁵⁾. 들에 나갈 때

(15) 李輔亨, 「音樂 및 舞蹈」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九冊 京畿道編(文化財管理局 1978), pp. 342~344.

에는 農旗를 앞 세우고 풍물로 길군악을 치며 나가고 들에서 2채 3채 등 여러 가락을 친 다음 農旗를 논두렁에 꽂고 풍물을 놓고 김을 매고 마을에 들 때에도 農旗를 앞 세우고 길군악을 치고 들어와 주인집에서 술대접을 받고 農樂을 치며 즐기다가 헤어진다.

김매기가 끝나면 陰曆 7月 그믐께 하루 날을 받아서 「파접」을 한다. 이 마을에서는 호미 걸이를 「파접」이라 부른다. 집집이 안주 한가지나 술 한 말을 시키었다가 그날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걸게 가추고 언덕에서 치다가 農旗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들을 한 바퀴 도는데 이것을 「農事巡訪」이라 부른다. 농사순방을 하고 다시 마을에 돌아와 언덕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갖가지 풍물놀음을 벌리고 논다.

(8) 江陵市 洪濟洞 질먹기

江原道 江陵市 洪濟洞에서는 여름철 모심기와 김매기에 農樂을 친다⁽¹⁶⁾. 농군들이 모심으러 갈 때, 모심고 쉴 때, 모 심고 돌아 올 때, 김매러 갈 때, 김 매고 쉴 때, 김매고 들어올 때 친다.

김매기를 마치면 하루 날을 잡아서 음식을 장만하여 나누어 먹고 農樂을 치며 논데 「질 먹는다」고 한다. 두레를 짠다는 말을 「질을 짠다」고 하는바 다른 고장에서 두레 먹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질 먹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질먹는 날을 받으면 領座가 지정한대로 집집마다 술·떡·안주 등 한가지씩 장만한다. 질먹는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고루 가추어 치며 農桑旗를 앞세우고 서낭당 앞가서 서낭굿을 치고 하루종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農樂을 치고 논다.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는 집집마다 머슴상을 걸게 차려 나오는데 서로 상을 잘 차리려고 경쟁하며 통닭이다, 육회다 하여 최고의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날을 俗稱 「일꾼 생일날」이라고 부른다.

2. 儀式構成形式

4·50년 전에 전승되는 두레굿들을 보면 흔히 김매 때 農樂을 치고 나갔고 들어올 때 치고 들어 왔고 김매기가 끝나면 날 받아서 그제 農樂을 치며 술먹고 놀았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레굿이 갖는 儀式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또 儀式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儀式이 부분적으로 탈락된 것들이 많으므로 앞에 든 事例 가운데 儀式의 種類를 추려서 構成해 볼 수 밖에 없다.

① 農神 내리기

農樂에서 쓰이는 큰 旗는 農旗, 農桑旗, 大旗, 龍旗, 龍당기, 용독기, 덕석기, 서낭기 등으로 부르는 바 農旗는 마을곳에 쓰이는 神旗나 神대(神竿)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므

(16) 李輔亨 「音樂 및 舞蹈」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八冊 江原道編 (文化財管理局 1977), p. 528.

로⁽¹⁷⁾ 두레패의 農旗 또한 農神의 神旗이며 神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密陽邑 三門洞 곰배기 참놀이의 두레굿에 세운 農神대가 마을굿의 神대와 같은 모습으로 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뒤집어서 恩山別神祭와 같이 마을굿에서 神旗가 두레패 農旗와 같은 모습으로 된 곳이 많은만큼 두레굿의 農旗를 神旗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密陽邑 곰배기 참놀이에 두레패들이 農神대에 農神祭를 지내는 것은 農神을 내리는 儀式의 대표적인 例이라 하겠다. 高陽郡 松浦面 大化里 호미걸이와 珍島 대동굿에서 農旗를 세우고 堂祭를 지내는 것도 農旗를 神대로 하여 農神을 내리는 例라 하겠다. 이밖에 泰仁面 泰興里 술매이와 같이 당산에서 호미걸이를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호미걸이를 당에서 하지 않고 언덕이나 큰 마당에서 하는 경우에도 洪城郡 結城面 衡山里 두레먹기의 경우와 같이 農旗를 세워 놓고 술 붓고 굿을 이루고 절하는 것이 農神을 받는 의식이라 하겠다. 이 때 「딩딩딩딩」하고 굿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굿을 이루는 「딩딩딩딩」하는 쇠가락은 본디 굿에서 神을 받는 가락과도 같다. 金提郡 大同里 두레굿의 경우와 같이 김매러 갈 때 당산에 農旗를 세우고 굿을 이룬 다음 農旗를 앞세우고 들로 나가는 것이나 洪城郡 衡山里 두레굿의 경우와 같이 洞口에 農旗를 세워 놓고 두레패들이 굿을 이룬 다음 農旗를 들고 들로 나가는 것도 모두 農神을 내리는 儀式이라 할 수 있다.

② 들들이(農事巡訪)

마을굿에는 집들이(家家巡訪)가 흔히 딸리나 두레굿에는 江華郡 松海面 率丁里 파접에 들들이(農事巡訪)이 보일뿐 다른 고장 호미걸이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김매러 갈 때 農神을 받은 農旗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고 들에 나가는 것이 들들이 儀式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두레굿이라 하면 흔히 김매기 勞動音樂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두레패들이 김매 때 두레 풍장을 치는 고장은 全羅道 西部地域에 한정되고 그 밖의 地域에서는 다만 마을에서 들에 나갈 때, 들에서 마을 들 때 두레굿으로 길군악을 치는 것이니 두레굿은 두레패들이 農旗를 앞세우고 들을 들고 나는 行進音樂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이것이 두레패의 들들이(農事巡訪)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大同里 술매이의 경우와 같이 호미걸이날 당산에서 農旗로 農神을 내리어 받고 農旗를 앞세우고 길굿을 치며 들에 가서 남겨놓는 논을 마저 내고 農旗를 앞세우고 길굿을 치며 들어와 호미걸이를 하는 것은 두레패의 길굿이 마을굿의 집들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두레패의 들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例라 하겠다.

③ 農神굿

(17) 註 1 과 같음

密陽邑 백중놀이, 珍島郡 仁智里 대동굿, 高陽郡 大化里 호미걸이와 같이 農神대나 農旗를 세우고 祭를 지내는 것은 바로 農神굿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호미걸이가 農神굿의 흔적을 잃고 있으나 泰仁 泰興里 술술메이와 같이 당산에서 農旗를 세우고 호미걸이를 하는 경우도 호미걸이가 農神굿의 儀式을 갖는 흔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④ 판놀음

마을굿에 판놀음이 딸리는 것을 볼 수 있듯이 豐農굿인 두레굿의 호미걸이에도 판놀음이 딸린다. 굿판에서 農樂놀이로 판굿을 치기도 하고 密陽 百中놀이나 高陽 大化里 호미걸이에서 보이듯이 農事풀이, 춤놀이와 같은 판놀음을 벌리는 것도 볼 수 있다.

IV. 두레풍장의 音樂

대부분의 두레패들은 들에 나갈 때 질굿을 치고 김매기에서는 쇠를 치지 않거나 치더라도 판굿 그밖에 다른 굿에서 치는 것을 그대로 치기 때문에 두레패의 音樂이 다른 農樂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金堤 扶安 井邑 高敞 靈光과 같은 湖南 西部地方에 한해서 「두레풍장」이라 하여 두레패들이 김매 때 치는 쇠가락이 따로 있다. <本文 井邑 泰仁面 술메이 參考> .

1977年 4月 22日~24日에 湖南右道農樂隊(상쇠 : 金四鍾·金成樂)가 연주한 두레풍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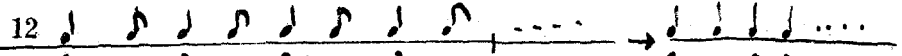
두레패들이 들에 나갈 때에는 먼저 <악보 1>과 같은 가락으로 굿을 이루고 <악보 2>와 같은 가락으로 몰다가 <악보 3>과 같은 가락으로 마치고 <악보 4>와 같이 질굿을 치며 들에 나간다. 들에 이르면 <악보 1~3>와 같이 치고 나서 <악보 5>와 같이 들풍장가락을 치면 농군들이 눈에 들어 간다. 풍장굿은 징을 치지 않고 팽과리 장구 북을 하나씩만 친다. 들풍장은 <악보 6>과 같이 몰다가 <악보 7>로 몰다가 <악보 8>로 몰고 나서 <악보 1~3>과 같이 치고 마친다. 농군들이 김매기를 시작하면 「지심풍장」을 <악보 8>과 같이 치고 지심매기가 거의 끝나면 날풍장을 치는데 날풍장은 들풍장 <악보 6>과 비슷하게 친다. 농군들이 싹쌀 때에는 <악보 1~3>과 치고 다른 논으로 가거나 마을에 들 때에는 <악보 4>와 같이 질굿을 친다.


두레풍장 가운데 3+2+3+2+2+3+3+2로 混合拍子인 들풍장 날풍가락은 다른 굿에서 보기 힘들고 지심풍장도 8分의 12拍子이나 쇠가락 리듬이 다른 굿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정읍 두레풍장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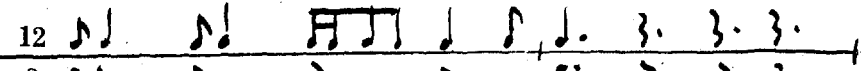
이 보형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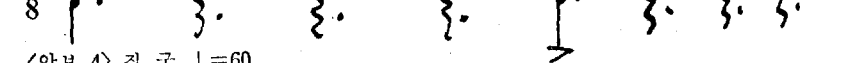
<악보 1> 굿 이루는 가락 ♩=120→180 <악보 2> 모는가락

쟁과리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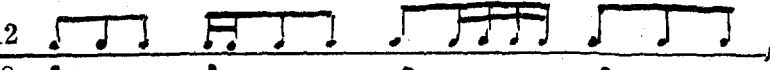
징 8 


<악보 3> 마치는 가락 ♩=50

쟁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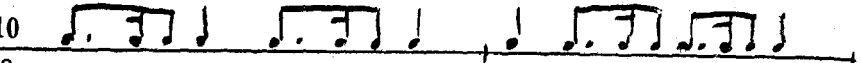
징 8 


<악보 4> 질 굿 ♩=60

쟁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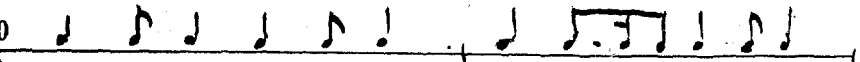
징 8 


<악보 5> 들풍장 ♩=200~250

쟁 10 

8 

<악보 6>

10 


8 


<악보 7>

10 


8 


<악보 8> 지심 풍장 ♩=70~80


12 

8 

5회 반복

점점 빠르게 



계속도로 

V. 맺는 말

農樂에서 당산제, 마당밭이 (地神밭기), 걸립굿과 같은 農樂에는 여러가지 儀式이 달리는 바 이 儀式의 構成은 서낭굿 別神굿 堂굿과 같은 마을굿(部落祭)에 보이는 당산굿—집들이(家家巡訪)—본굿—판놀음과 같은 儀式構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미 밝혀졌으나 두레굿 農樂은 農民들의 勞作農樂으로만 알려졌지 두레굿의 儀式이 마을굿의 儀式과 같은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두레굿의 儀式이 거의 퇴화되어 있으나 두레굿에 儀式이 남아 있는 예를 추려 보면 두레굿에도 農神내리기—들들이(農事巡訪)—農神굿—판놀음과 같은 儀式構成의 흔적이 남아 있어 마을굿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레굿은 豊農굿 대동굿과 같은 마을굿의 儀式에서 생기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두레패의 농악은 다른 농악의 질곡을 그대로 쓰기 때문 특이한 것이 없으나 湖南西部에 한해서는 「두레풍장」이라 하여 특이한 쇠가락이 발달한 것을 밝힐 수 있었다.